



“절편녹용 5년내 개방허용 절대 불가”

— 본회 대표단 뉴질랜드 파견, 조기개방 시도에 쐬기 —

한·뉴간 무역분쟁화 되고 있는 절편녹용 수입허용에 대해 본회는 5년내 개방허용 불가 입장을 압력 당사국인 뉴질랜드에 직접 전달했다.

본회는 지난 6월21일 절편녹용 수입저지를 위한 농가대표단(단장 배소식부회장)을 뉴질랜드에 파견,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, 양육위원회(GIB) 등과의 면담 및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. 본회는 이와함께 5년간 한·뉴 생산자 공동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실시, 잠재시장 개척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제의했다.

본회 대표단은 21일 2차례에 걸친 뉴 양육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절편녹용 수출이 뉴질랜드 녹용의 한국시장 점유율 제고에 결코 유리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, 특히 한국내 양육농가 피해와 품질관리 제도 미비에 따른 소비자 피해우려를 무시한 조기 수입개방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.

또 이날 오후에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피터 퍼거슨(Peter Ferguson) 북아시아국장 및 농림부 관계자를 면담하고, 절편녹용 시장 조기개방 요구를 중단할 것과 양국 생산자간 상호협력에 의한 이익증진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.

이에대해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제한없는 무역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, 특히 양육위원회는 절편녹용 수입협상이 7년간 지

속돼온 점을 들어 5년의 유예기간 설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.

이번 본회의 방뉴활동은 우리정부의 수입허용 불가 논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25일 개최된 제 5차 한·뉴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2003년 1월부터의 개방원칙을 확인하려 한데 따른 대응활동이다. 특히 절편녹용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은 물론, 이해당사자인 양육농가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간 협상만으로 개방일정이 진행되는데 따른 강력한 반발의지가 반영된 것이다.

대표단을 이끌고 방뉴활동을 벌인 배소식 본회 부회장은 “정부간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충분한 입장을 뉴측에 설명했으며, 특히 5년간 수입불가라는 분명한 원칙을 못막음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”고 의미를 부여했다. 그는 “뉴질랜드 양육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양국 생산자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으며, 절편녹용 수입에 대한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10월 한국에서의 회의개최 약속 등 지속적인 생산자간 대화원칙을 도출해 낸 것도 성과”라고 평가했다.

대표단은 한·뉴경제공동위 참석차 24일 웰링턴에 도착한 재정경제부, 보건복지부, 농림부, 식약청 등 우리정부 대표들과 협상 전략을 협의하고 25일 귀국했다. **민국양육**